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니다.
인도불교동기추진위 (02)745-7799
조용은(741)-04-365950 (예금주: 인도불교)

천막·컨테이너박스 ‘노천법당’ 환경보살들의 ‘선방’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통과, 새만금 간척, 통도사 초산유원지 개발 사업 등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땅이라는 생명의 본령이 처참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중생이 나올 때 까지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보살’이 나설 수밖에.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통과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울스님의 법당은 부산시청 앞 노천이다.

2월 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울스님의 노천법당을 장막하고 있는 것은 스님이 짝은 천성산 생태계 사진뿐. 하지만 어떤 법당보다 부처님의 자비로 충만하다.

북한산을 지키기 위해 2월 20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도 노천법당이 들어섰다. 불교환경연

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조직실장 법현스님, 회룡사 성다·주현·지현스님 등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친화 정책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도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이 법당 가득하지만 스님들의 기도는 이 시대의 정신적 ‘오존’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라북도 부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법당이 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해창사(海倉寺, 주지 수경)가 바로 그것이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 기도의 집’문구

부산시청·조계사·용문사 앞·새만금 해창사 등 불품은 없지만 ‘중생구제’ 치열한 정진 이어져

현 신부’과 이웃한 해창사에는 향내가 아닌 짝 냄새가 가득하다.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던 3보 1배가 3월 21일부터 다시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 앞에도 노천법당이 있다. 일주면 150m 앞에 현대식 향토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최근 용문사는 양평군청과 건물 외관을 전통양식으로 짓기로 합의했다.

노천법당의 ‘환경보살’들. 이 시대의 중생구제인 환경보존을 위해 죽을 각오로 정진하고 있다. 너와 내가 들어 아니듯 인간과 자연이 들어 아님을 몸으로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남동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앞 노천법당에는 매연과 소음이 가득하지만, 스님들의 기도는 이 시대 정신적 ‘오존’이 되기에 충분하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해창사’ (사진제공=불교환경연대)



◇용문사 앞 노천법당 뒤로 철근이 날카롭게 서 있다.



◇법현스님(사진 맨 왼쪽)이 지울스님께 편지를 쓰고 있다.

‘북한산’ 법현이 ‘천성산’ 지울스님께...
“많은 시간 곡기 끊고 건강 어떠하십니까?
저도 사패봉 생명에 등지 약속했어요”

지울스님께 두 손 모읍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우정규로에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아 봄에 세월을 내어주기가 무척이나 아쉬운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이 높으면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두면 만사가 여일할 것인데 꽃기듯이 욕망을 추구하며 변화시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산도 천성산도 금정산도 몸살을 앓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지난번 뵈었을 때는 기백이 청정하게 살아서 두 눈빛이 강렬했는데, 이십여 일이 지난 지금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많은 시간 곡기 끊고 계시는 스님을 생각하면 목이 베어옵니다.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라며 저를 질책해 주신 스님의 목소리 언저리에 묻어나는 촉촉한 기운은, 이 후배 불인 파란 미래를 저어하고 격려하시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필요로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그동안 우리가 나 몰라라 한 이 세상의 생명이 그 동안 그들에 대한 유기와 태만을 벌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스님께서 천성산의 작은 꽃잎과 생명들에게 약속을 하셨듯이 저 또한 사패봉의 오색따다구리와 오소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등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꼭 되찾아 주겠다고요.

스님!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글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의 매화향기를 그리면서...

“천성산 살리자” 메아리 확산

내원사 지울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농성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돼 2월 28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부산시청 앞 천막 농성장에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인 등 100명이 지울스님을 지지하는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생명 상생을 위한 100인 100일 단식’이라고 명명된 100인 농성은 맑고 푸른 시민연대, 민노당 부산지부, 녹색연합, 정토회,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매일 릴레이식으로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

가게 된다.

27일 자진발기로 행사를 시작한 이들은 “노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무시는 제2의 법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 바란다’ 동영상 상영, 시낭송, 생명사랑 실천을 위한 촛불 묵념 등을 진행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또한 이날 부산 경남 지역 교사 1000명은 환경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담은 1000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사 1000명의 서명을



◇지울스님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부산경남 포교사단 임원들의 26일 환경 기도법회 모습.

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환경법회에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단식 정진하는 지울스님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의 불교도들과 연대해 고속철 관동 백지화 공약이 이행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 중 부산경남 포교사단 전체가 동참하는 대규모 법회를 열 계획이다.

28일 현재, 단식 24일째인 지울스님의 단식 농성장에는 윤희동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신부의 동참 단식을 시작으로 통도사 국과장급 스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신부, 박주미 부산시의원,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 등의 단식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우륵 울산 학생선원 조실 스님을

종교계·시민단체·조계종 원로스님 지원

‘100인 100일 단식’ 릴레이 철야농성

받은 서명서와 선언문을 지울스님에게 전달했다.

첫날 철야 농성을 마친 이들은 28일부터 5명~10명씩 조를 나눠 매일 매일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100일 철야농성 돌입 하루 전인 26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경남 포교사단(단장 최덕수)의 금정산 천성산 살리기 환경법회가 열렸

비롯 수경스님, 법장스님,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이 방문해 지울스님을 지지했다.

한편 조계종 원로회의는 2월 27일 총무원 4층에서 제20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지울스님을 격려토록 총무원장 스님과 부산대지역에 주석중인 원로스님들이 함께 격려 방문할 것을 결의했다. 지울스님의 단식농성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 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